

중국 기생충 관리 위한 새로운 협조 체제 마련



남 서 중
건협 경남지부 사무국장

북경은 유서깊은 유적들이 많은 곳으로, 현재와 옛 것이 조화를 이루어 생존하는 도시이다. 그동안 중국에서 큼직한 행사를 할 때면 어김없이 TV화면에 나오는 천안문과 중국 역대 제왕들이 사용했고 마지막 황제 부의가 13년간 일본군에 의해 감금되어 있었다는 자금성을 관광하기 위해 북경 시내로 가는 도중 차량과 자전거의 접촉사고로 두 사람이 다치는 모습을 보았다. 주변사람들은 두 사람을 말리지도 않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 말로만 들어 온 느긋한 국민성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천안문 광장은 매우 넓고 깨끗했다. 광장을 바라보며 오른쪽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당, 국가상무위원회, 왼쪽에는 혁명 박물관, 모택동 주석 기념관비 천안문 광장 가장자리에는 중화인민영웅 기념비 등 중국인민공화국의 정치일번지라고 할 만한각종 대

회당들이 즐비했다.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으며, 한가로이 사진촬영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사랑을 속삭이며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들도 많이 보였다.

매우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금성 관광을 즐기고 있었다. 자금성은 북경에 있는 명·청시대의 궁전으로, 자금이란 복두성의 북쪽에 위치한 자금성이 천자가 거처하는 곳이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북경의 내성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명의 영락제가 남경(서안)에서 북경으로 천도할 때 건립하여 1420년에 완성되었고 명·청시대를 거치는 동안 궁전과 궁문을 여러 차례 보수 개축하였다고 한다. 남북 약 1km, 동서 약 760m이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철옹성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했고 정문은 오문, 동쪽을 동화문, 서쪽을 서화문, 북쪽을 신무문이라 부르며 네 모퉁이에 누각이 서 있어서 그 규모나 화려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오문에서 북쪽으로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동서로는 문화전, 무영전 등의 누각이 있다. 교태전은 왕후의 생일 축하 연회 장소였다고 하며, 태화전은 동서 60m, 남북 33m의 당당한 건물로 자금성의 정전이며 중요 의식장으로 사용되었다. 내정은 1925년 이래 고궁 박물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중국 문화유산의 전당이 되고 있다.

7월 2일에는 지하 궁전이 있는 명 13능을 보러 갔다. 명 13능이라 하여 명나라 황제의 무덤 13기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명나라 13대 황제인 신종 주익균(朱翊鈞)의 무덤으로, 왕후와 함께 사후의 영화를 위하여 세워 시 비밀리에 지하 27m 아래에 330평 규모로 궁전을 축조한 것이었다. 1975년 발견되기까지 정지된 시간 속에 묻혀 있었는데, 당시 지하 궁전을 축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한다.

황제의 관(높이 2m, 길이 3m)을 중심으로 좌우에 왕후 두 분의 관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앞쪽으로는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옥으로 된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다. 발견 당시 많은 보물이 나왔으며, 6년간의 공사 끝에 오늘날의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사후세계에 대한 미련이 많은가 보다.

오후에는 만리장성을 구경했다. 서안행 비행기를 타야하는 관계로 시간이 없는지

안내자의 발길이 빨라졌다. 가는 도중 점심 식사를 위하여 고급 중국 전문 음식점인 북경반점에 들렀다. 중국의 음식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즐거웠고, 알콜농도 60%인 이강두주를 반주로 곁들인지라 그간의 피로가 확 가시는 것 같았다.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만리장성이 멀리 보이기 시작한 시간이 오후 2시. 명 13능에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말로만 듣던 대 장성을 눈 앞에서 직접 보니 그 규모나 성을 쌓은 기법이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빼어나다. 많은 여행객들로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하는 인파를 헤집고 겹겹이 이어진 끝없는 성곽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했다.

높이 7m 정도, 폭은 자동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5m는 될 것 같았다. 진시황이 BC 221년에 천하를 통일하고 북방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6,800m 길이의 만리장성. 험준한 지형을 골라 축조된 성곽에는 지금도 틈하나 보이지 않으니, 당시의 성곽축조술은 지금도 모방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 관광객을 위해, 소메치기를 조심하라는 우리 글 안내판도 곳곳에 보였다.

아름다운 주변의 풍경과 빼어난 성곽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서안으로 출발하기 위해 북경공항으로 향했다. 북경에서 임회장님과 허선 교수께서는 광서성 난닝시 기생충병 연구소 및 푸수이현 위생국 방문을 위해 일행과 잠시 헤어졌다. 한편 귀국 즉시 설악산 직원연수교육에서 있을 지부 대항 불링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성총장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난 후
 일행과 함께



님, 하국장님과 함께 연습을 목적으로 저녁 9시에 호텔 근처의 불링장에 들었다. 불링 붐이 조성된지 얼마 안되었는지 점수를 계산하는 전자판이 없어 종이에 합산해야 했고 바닥은 꺼칠하여 공을 던지기가 매우 어려웠다.

7월 3일 저녁 8시에 일행은 서안 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6대 고도(古都)의 하나로써 옛 지명은 장안이며, 실크로드가 시작된 곳이다. 주나라에서 당나라까지 천년간의 왕도였던 서안의 수 많은 유적지 중 가장 잘 알려진 진시황릉, 병마총, 비림, 대안탑, 양귀비가 살았던 화청지 등은 모든 여행객들이 한번쯤은 꼭 돌아보는 명소이다.

인구 300만명의 서안에는 조선족이 1,000명 정도 살고 있다. 강우량은 600mm이고 7~8월이 우기이며, 2모작으로 옥수수나 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밀을 수확한 지금은 옥수수가 한창 자라고 있었다. 특산물로는 석류가 많아 중국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크제품을 파는 곳도 여러 곳이 있었다.

서안의 거리는 심양과 비슷한 느낌이었

으나 천년의 고도인 만큼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어 공기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건물, 자동차 등은 우리 나라 70년대의 수준이었으나 묵고 있는 호텔만은 매우 화려하여 그 규모, 시설 등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았다. 공산권 국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호텔이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투숙했던 모든 호텔이 아주 좋았다.

다음 날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양귀비가 살았던 화청지(華淸地)에 가 보았다. 양귀비는 BC 719~756년 당나라 현종의 총비였다. 양현염의 딸로써 당 현종의 며느리였으나 현종은 아들이 죽은 후 1년간 금사 동굴에서 기도를 드리며 속죄케 한 후 자신의 총비로 맞이했다고 하는데, 안록산의 난 때에 축출되었다 한다.

그녀가 살았던 비상전, 화청지, 여산온천 등 곳곳의 아름다움은 정말 형언하기 어려웠다. 특히 헤당탕이라고 하는 양귀비의 목욕탕은 가로 4m, 세로 3m 정도의 규모로 온천을 이용한 탕으로 내부는 백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때의 영화와 현종의 양귀비를 향한 사랑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후에는 진시황릉과 병마총 비림을 관광하기로 했으나 진시황릉은 도로공사 관계로 멀리서 보아야 했다. 멀리서도 큰 산처럼 보이는 능은 중국 섬서성 임동의 여산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진시황이 생전에 직접 조영했다는 능의 길이는 약 350m, 높이는 50m 정도라고 한다.

병마총은 1, 2, 3호기가 있다. 1, 2호기에는 진시황의 생전에 호위하던 6천명의 근위병들의 모습을 일일이 흙으로 빚어 출병대열로 지하에 묻어 두어 사후에도 자신을 호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모습이나 표정 중 닮은 것이 없다고 한다. 3호기는 장군들의 작전 지휘부로 형성되어 있다. 유물 전시관에는 당시 무기들이, 지금도 손을 대면 벨 정도의 날카로움을 간직한 채 전시되어 있었다.

진시황은 근위병 모두를 죽여 병마총을 만들도록 지시했으나 충신 진사가, 병사를 죽이시면 백성의 반란이 뒤따를 것이라며 간곡히 만류함으로써 흙으로 병사와 말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간곡한 충언이 없었더라면 많은 살상이 뒤따랐을 것이다.

비림(碑林)은 서안 시내에 있다. 과거에는 공자의 묘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각처에서 모아 온 2천개의 비석을 보존하고 있다. 비석이 숲을 이루었다 하여 비림인데, 비석의 보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옛것을 소중히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림 구경을 끝내고 덕발장(德發長)이라는, 서안에서 가장 큰 만두전문 음식점에서

지금까지 구경도 못한 여러가지 만두로 저녁식사를 했다. 만두는 19가지(돼지만두, 콩만두, 오리만두, 죽순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등)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음식문화는 역시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서 우리도 다양한 종류의 음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저녁에는 서안의 야경과 풍물을 견학하기 위해 야시장을 찾았다. 그들의 생활상과 이국의 정취에 흠뻑 젖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많은 좌판 중 양고기를 즉석 요리하는 곳에서 청년들이 누가 더 많이 술을 마시는 지 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소박한 국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7월 5일 오전 10시, 호텔을 출발해 현장 법사가 대당서역기(견문기)를 써서 당태종에게 충애를 받아 지었다는 대안탑을 구경하고 서안을 떠나 계림으로 출발했다.

TV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12만 봉우리가 죽순처럼 형성되어 있는 아열대성 기후의 팡서성 장족 자치구인 계림. 계수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계림 지역은 수량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빼어나며 석회암 지대로 기암이 많다. 30℃의 아열대성 기후라서 습기가 많은 것 같았고 계수나무 가로수 곳곳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소수민족 장족은 왜소하고 창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저녁에는 우리 숙소 바로 옆 호텔에서 소수 민족의 무용공연이 있다고 해서 1인당 인민화폐 1백원씩(한화 1만원)을 지불하고

관람했다. 춤 동작이 아름다웠고, 관객을 무대 위로 끌어들이며 같이 춤을 추는 기회도 있어 일행 모두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행운을 얻었다.

7월 6일, 로즈강을 따라 양쪽에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수 많은 봉우리를 보기 위해 유람선을 타고 양삭까지 뱃길 83km를 달렸다. 4시간 동안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신이 창조한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곳 로즈강변의 절경에 일행은 흠뻑 젖어 있었다. 강변을 따라 형성된 부락과 기암 봉우리, 한무리의 물소 떼가 헤엄치는 모습, 대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그물을 치는 어부, 강을 따라 상류로 향하며 한 선상에서의 점심식사는 모든 관광객의 마음을 더욱 사로 잡았다.

아쉬운 마음에 미련을 남긴 채, 일행은 마지막 방문지인 상해 기생충병 연구소로 가기 위해 계림공항을 출발했다. 상해는 인구 1천 3백만으로 국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춘 곳이었다. 그러나 일행이 도착한 날에는 며칠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어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했고 교통 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저녁 10시 40분, 호텔에 도착하여 난닝지방의 기생충 실태조사를 위해 중국 오지까지 다녀오신 임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7월 7일, 아침 일찍 상해 기생충병 연구소를 방문했다. 행쟁(Feng-Zheng) 연구소장의 안내로 2층 회의실에서 연구소가 하는

일을 설명 듣고 각종 자료실 동물 실험실 등을 견학했다. 그 중 기생충 관련분야 잡지가 보관된 50평 규모의 도서관이 매우 놀라웠다.

예방의과학원보다는 내방객을 맞이하는 태도가 앞서가는 느낌이었다. 상해가 국제도시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았다. 소장도 우리 협회에 다녀간 경험이 있어 알 것 같았다. 처음 받아보는 연구소 소개 책자에도 정감이 갔다.

연구소에서 극진한 점심식사를 대접받고 상해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도모한 홍구공원(지금의 노신공원)을 구경하고 상해 최고 호텔에서 공연하는 곡예(써커스)를 관람하기도 했다. 일행은 은하(銀河) 호텔에서 그간의 중국방문 느낌과 나름대로 얻은 정보를 주고 받으며 귀국 전날 밤을 보냈다.

7월 8일, 바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행을 축복이라도 하듯 보름동안 계속되었다는 비가 개이고 하늘도 맑고 아름다웠다. 지금 이야기지만 북경 호텔의 TV에서 미국의 CNN, 일본의 NHK 위성방송을 통해 보도된 국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소식을 연일 보도해 주었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세계 속의 한국을 심기 위해 세계의 곳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내실이 있고 안정된 국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2]